

難經 1-23難中 脈學條에 관한 研究

金法震·朴元煥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초록】 <難經>은 <內經>의 思想을 보다 仔細하고 深度있게 問答을 假說하여 疑難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書籍으로써, 論述은 基礎理論을 위주로 하고, 또 일부 病說도 分析하였는데 그 내용이 簡要하며, 辨析이 매우 精微하게 되어있다. 그 중 1-23難은 脈을 論하고, 23-29難은 經絡을 論하고, 30-47難은 臟腑를 論하고, 48-61難은 病을 論하고, 62-68難은 穴道를 論하고, 69-81難은 鍼法을 論하였다. 특히 <難經>에는 診法으로써 오늘날 까지 한의학의 脈診方法으로써,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獨取寸口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本 著者는 <難經>의 脈論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하여 <難經之研究>를 중심으로 1-23難에 나오는 脈論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八十一難經中 一難부터 二十三難까지의 脈學에 關한 條文中에는, 百脈이 朝會하고 그 始作과 끝이 되는 寸口를 中心概念으로 하고 正常的인 生理의 脈과 病的인 脈이 對比되면서 提示되어있다.

1. 十難에서 五邪와 剛柔의 理論과 各 臟腑의 固有한 脈狀이 登場하고 있다.
2. 十三難에서는 色과 脈, 形肉의 세가지 要素가 相應또는 相勝하는가에 따라서 病的 難·易治를 決定한다고 하였다.
3. 十四難에서는 脈을 損(遲脈)과 至(數脈)으로 구분하는데, 脈의 損에 따른 離經、奪精、死、絶命의 區分과, 脈의 至에 따른 離經、奪精、死、絶命을 區分을 說明하였다.
4. 十五難에서는 弦、鉤、毛、石脈으로 四時에 따라서 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같이 難經에서는 "獨取寸口"의 脈法을 明確하게 確立하였으며, <內經>의 理論을 더욱 다져서 進一步시키면서도 <內經>과는 다른 獨創의 理論을 提示한 것이 <難經>의 價値를 더하게 하였다.

중심낱말 : 難經, 內經, 經絡, 獨取寸口法

I. 緒論

<黃帝八十一難經>¹⁾은 秦越人(扁鵲)이 著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史記>의 扁鵲列

傳에 <難經>이 提示되지 않고 있으며, 思想的으로 陰陽五行說의 影響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東漢時代의 것으로 看做되고 있다.²⁾

1) 王九思外,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4年 秦越人,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 1982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1987, p. 95

<內經>과 더불어서 가장 古典的인 東洋醫學의 理論書인 <難經>은 <內經>의 思想을 보다 仔細하고 深度있게 問答을 假說하여 疑難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書籍으로써, 論述은 基礎理論을 위주로 하고, 또 일부 病說도 分析하였는데 그 내용이 簡要하며, 辨析이 매우 精微하게 되어있다. 그 중 1-23難은 脈을 論하고, 23-29難은 經絡을 論하고, 30-47難은 臟腑를 論하고, 48-61難은 病을 論하고, 62-68難은 穴道를 論하고, 69-81難은 鍼法을 論하였다. 이와 같이 <難經>은 冊의 名稱처럼 <內經>의 難解하고 哲學的인 原理를 잘 說明하여 後世의 醫書 研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³⁾

특히 <難經>에는 診法으로써 오늘날 까지 한 의학의 脈診方法으로써,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獨取寸口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難經>에 관한 研究는 三國時代 吳나라의 呂廣으로부터 그 후 많은 註家에 의해서 註釋書 形態로 전해오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難經>에 관한 解說書가 많지 않고, <難經>의 脈論에 대한 深度있는 研究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이에 本 著者는 <難經>의 脈論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米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本間祥白의 <難經之研究>⁴⁾를 중심으로 1-23難에 나오는 脈論들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⁵⁾를 基準으로 하였다.
2. 難經 八十一難 中에서 主로 脈學理論에 關해서 많이 說明되어 있는 一難부터 二十三難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3. <參考>는 本間祥白의 <難經之研究>를 주

로 活用하여 選別整理하였다.

4.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各難別로 나누고, 原文에 대한 解析을 하였으며, <難經之研究>에서 引用하고 있는 <難經本義>와 <難經正義>⁶⁾의 註解를 考察整理하였다.
5. 本 論文에 사용한 引用文獻은 < >로 표시하였다.
6. 本 論文에 사용한 引用文句는 “ ”로 표시하였다.

III. 本 論

1. 一難

一難曰 十二經 皆有動脈,獨取寸口,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何謂也? 然,寸口者,脈之大會,手太陰之脈動也.人一呼脈行三寸,一吸脈行三寸,呼吸定息,脈行六寸,人一日一夜,凡一萬三千五百息,脈行五十度,周於身,漏水下百刻,榮衛行陽二十五度,行陰亦二十五度,爲一周也,故 五十度復會於手太陰寸口者,五臟六腑之所終始,故法取於寸口也⁷⁾

(解釋)

一難에 이르기를 十二經의 모든 動脈을 寸口脈으로써 判斷하여 五臟六腑의 좋고나쁨과 죽고살을 決定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寸口는 脈의 大會인데 手太陰肺經의 脈이 뛰는 곳이다. 사람이 숨을 한번 내쉴 때 脈은 三寸을 進行하고 한번 숨을 들이쉴 때 脈이 三寸을 간다. 한 呼吸에 脈은 六寸을 가므로 하루 밤낮 동안에 一萬三千五百번의 숨을 쉬므로 脈은 몸속에서 五十도를 도는 것이다. 百刻(하루동안)에 榮衛는 陽經을 二十五度 돌고 陰經을 二十五度 돌아서 한 周期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3) 尹暢烈·金善鎬, (黃帝八十一 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診斷學會誌,1997

4) 本間祥白(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86

5) 吳垣村, 難經本義, 台南: 莊家出版社, 中華民國73年

6) 葉霖, 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 1990

7) 葉霖, 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 1990

五十도가 되면 다시 手太陰肺經의 寸口에서 만나지게 되는 것으로, 五臟六腑의 始作과 끝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寸口脈을 取할 수 있는 것이다.

(參考)

<難經本義>⁸⁾에 寸口를 氣口라고 하는데 氣口의 아래를 關이라하고, 그 아래를 尺이라고한다. 모두 手太陰經에 속하는데 그러므로 手太陰經은 百脈이 流注하고 朝會하는 곳이다.

<素問·五臟別論>⁹⁾에는 “黃帝가 물기를 氣口脈이 어떻게 하여 홀로 五臟의 氣運을 代表 할 수 있는가를 묻자, 岐伯이 이르기를 胃는 水穀之海로써 六腑의 큰 根源입니다. 五味가 입으로 들어온 후 胃에 갈무리되어 五臟의 氣를 기르는데 이 變化가 氣口에 나타나는 것입니다.”라 하였고, <靈樞·第1篇>¹⁰⁾에 이르기를 “脈은 太淵에서 모인다.” 라고 하였다. 이는 <素問·經脈別論>¹¹⁾에 이르는 “肺朝百脈”과 같은 말이다. 手太陰肺經은 十二經 榮衛循環의 出發點인 同時에 終點이다. 寸口는 手太陰肺經의 脈이 뛰는 곳이며 이곳은 五臟六腑의 氣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는 五臟六腑의 氣의 狀況이 잘 나타나므로 이곳을 診察하므로써 全身 各器官의 狀態를 알 수 있고, 이로써 生死 吉凶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 二難

二難曰 脈有尺寸何謂也? 然,尺寸者,脈之大要會也. 從關至尺,是尺內,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是寸口內,陽之所致也. 故分寸爲尺,分寸爲寸. 故陰得尺內一寸,陽得寸內九分. 尺寸從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

(解釋)

二難에 이르기를 脈에는 尺脈과 寸脈이 있는

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것입니까?

尺寸脈은 脈이 크게 모이는 곳으로 關을 따라서 尺澤쪽으로는 尺이라고 하는데 陰을 主管하는 곳이고 關을 따라서 魚際쪽으로는 寸이라고 하는데 陽을 主管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寸을 재어서 尺으로 삼고 尺을 재어서 寸으로 삼는다. 關에서 陰의 方向으로 一寸에 있는 것이 尺이고 關에서 陽의 方向으로 九분에 있는 것이 寸이다. 尺寸의 始作과 마침이 一寸九분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가르켜서 尺寸이라 하는 것이다.

(參考)

<難經本義>¹²⁾에 따르면 二難에서는 寸口를 길이 單位인 寸과 尺(十寸에 該當)으로 나누는 理致를 說明하고 있는데 關의 位置에서 尺澤쪽으로 一尺(十寸) 距離를 尺이라 하고 魚際쪽으로 九분의 距離를 寸이라한다. 十은 陰의 數이므로 尺脈쪽으로는 陰을 主管하는것이되고 九의 數는 陽數이므로 寸脈은 陽을 主管하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關은 掌後의 高骨(橈骨 莖狀突起) 部位를 일컫는다. 尺寸은 모두 一尺九분이 되며 偶數는 陰에 屬하고 奇數는 陽에 屬하는 理致를 들어서 寸口의 陰陽을 區分하고 있다. 二難에 登場하는 이러한 陰陽의 區分法은 三難의 病脈論에서 太過 不及脈에 應用되고 十九難의 男女逆順의 脈論, 二十難의 伏匿之脈論에도 關聯되어 나타난다.

難經에서 陰陽을 區分하는 것은 二難에서 尺寸의 길이 單位를 利用한것과 六難에서의 浮沈에 依據한 것이 있다.

難經에서의 寸法은 等身寸法인데 이는 患者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다.

患者의 肘關節과 腕關節사이를 基準으로 한다.

關脈을 中心으로 寸과 尺의 距離가 一尺 九分인 論法은 十八難의 三部九候論에도 應用된다.

8) 吳瑣村, 難經本義, 前掲書

9) 王琦外 3人,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10)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技, 1989

11) 王琦外 3人, 素問今釋, 前掲書

12) 吳瑣村, 難經本義, 前掲書

寸口脈을 寸,關,尺 三部로 나누는 것은 內徑에는 없던 것이고 難經의 獨創的인 理論이다.

3. 三難

三難曰 脈有太過,有不及,有陰陽相乘,有覆有溢,有關有格,何謂也? 然,關之前者,陽之動也,脈當見九分而浮,過者法曰太過,減者法曰不及,逐入魚爲溢,爲外關內格,此陰乘之脈也,關以後者,陰之動也,脈當一寸而沈過者法曰太過,減者法曰不及,逐入尺爲覆,爲內關外格,此陽乘之脈也,故曰覆溢是其眞藏之脈,人不病而死也.

(解釋)

三難에 이르기를 脈에는 太過와 不及이 있고, 陰陽相乘이 있고 覆溢과 關格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것입니까? 그것은 이리하다.

關의 앞은 陽이 움직이는곳인데 九分의 位置에 있으며 脈은 浮하다. 이보다 지나친 것을 太過라고 하고 이보다 적은 것을 不及이라고 한다. 윗쪽으로 直行하여 魚際로 넘치는것을 外關內格이라고 한다.이는 陰乘의 脈이다.

關의 뒤는 陰이 움직이는곳인데 一寸의 位置에 있으며 脈은 沈하다. 이보다 지나친 것을 太過라고하고 이보다 부족한 것을 不及이라고하는데 아랫쪽으로 直行하여 尺澤을 뒤덮는것을 覆이라고 하고 內關外格이라고 한다.

이는 陽乘의 脈이다.

이를 覆溢한다 하는데 眞藏脈이라고 한다. 이때는 비록 病이 없더라도 반드시 죽는다.

(參考)

<難經本義>¹³⁾에 따르면 太過,不及은 病脈이며 關格覆溢은 死脈이다.

<素問·六節藏象論>¹⁴⁾과 <靈樞·第九, 四十九篇>¹⁵⁾에 人迎脈으로써 陽經을 判斷하고 氣口脈으로써 陰經을 判斷한다고 하나, 難經에서는 關을 中心으로 寸脈으로 陽을 보고 尺脈으로 陰

을 본다.

關格에 있어서 關은 閉한 것을 말하고 格은 拒하는 것을 말한다.

陽氣가 太盛하여 尺의 部位에 陽이 侵犯하여 넘쳐흐르면 이를 陽乘陰의 脈이라고한다.

覆이란 뒤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溢은 안에서 바깥으로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關格이나 覆溢은 마찬가지로 胃氣가 없는 脈이다. 浮,中,沈을 살펴서 浮와 沈은 있으나 中에서는 脈이 없는것을 말하고 이를 眞藏脈이라고한다.

眞藏脈이란 獨陰 혹은 獨陽의 맥이다.

이는 사람이 비록 病이 없지만 반드시 죽는 脈이다.

4. 四難

四難曰,脈有陰陽之法,何謂也? 然,呼出心與肺,吸入腎與肝,呼吸之間,脾受穀味也,其脈在中. 浮者,陽也,沈者,陰也,故曰,陰陽也,心肺俱浮,何以別之? 然,浮而大散者心也. 浮而短濇者肺也. 腎肝俱沈,何以別之? 然,牢而長者肝也. 按之濡,舉指來實者腎也. 脾者中州,故其脈在中,是陰陽之法也. 脈有一陰一陽,一陰二陽,一陰三陽. 有一陽一陰,一陽二陰,一陽三陰. 如此之言,寸口有六,脈俱動也? 然,此言者,脾有六脈俱動也,謂浮沈長短滑濇也. 浮者陽也,滑者陽也,長者陽也,沈者陰也,短者陰也,濇者陰也. 所謂一陰一陽者,謂脈來沈而滑也. 一陰二陽者,謂脈來沈滑而長也. 一陰三陽者,謂脈來浮滑而長,時一沈也. 所謂一陽一陰者,謂脈來浮而濇也. 一陽二陰者,謂脈來長二沈濇也. 一陽三陰者,謂脈來沈濇而短,時一浮也. 各以其經所在,名病逆順也.

(解釋)

脈에는 陰陽의 法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일컬음 입니까? 그것은 이리하다. 呼出할때에 心과 肺脈을 보고 吸入할때는 肝과 腎의 脈을 본다. 呼吸之間에는 脾가 水穀之味를 받으며 그脈은

13) 吳瑣村, 難經本義, 前揭書

14) 王琦外 3人, 素問今釋, 前揭書

15)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揭書

중에 있다. 浮한 것은 陽이고 沈한 것은 陰이다. 그렇게 陰陽이 되는 것이다. 心肺의 脈은 모두 浮하나 어떻게 差別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리하다. 浮하면서 大散한 것은 心脈이고 浮하면서 短濇한 것은 肺脈이다. 肝腎은 모두 沈한데 어떻게 差別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리하다. 牢하면서 長한 것은 肝脈이고 눌러서 濡하고 脈 때 實한 것이 腎脈이다.

脾는 나라로 치면 中州에 該當되므로 그 脈도 中에 있다. 이것이 陰陽의 法이다.

脈에는 一陰一陽, 一陰二陽, 一陰三陽과 一陽一陰, 一陽二陰, 一陽三陰이 있는데 이를 두고 寸口에 여섯 개의 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리하다. 그 말은 여섯 개의 脈이 寸口에서 同時에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浮沈長短滑濇”이 있다는 말이다.

浮, 長, 滑은 陽이고 沈, 短, 濇은 陰이다.

一陰一陽이라고 하는 것은 脈이 沈, 滑한 것을 말하고 一陰二陽은 脈이 沈滑하고 長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一陰三陽은 脈이 浮, 滑, 長하면서 때때로 沈한 것을 말한다. 一陽一陰은 脈이 浮하면서 濇한 것을 말하고 一陽二陰은 脈이 長하고 沈濇한 것을 말하고 一陽三陰은 脈이 沈, 濇, 短 하면서 때때로 浮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各各 제 經絡에 있으면서 病의 逆順을 나타내는 것이다.

(參考)

難經에는 여러 가지 觀點의 陰陽分別 方法이 있는데 四難에서는 呼吸浮沈으로써 陰陽을 判斷한다. 三難에서는 尺寸의 位置로써 陰陽을 判斷했고, 十九難에서는 男女의 陰陽을 보는 것과 比較된다. 呼吸에 있어서 呼를 할 때는 心과 肺가 二動으로써 行하고 吸을 할 때는 肝과 腎이 二動으로써 한다.

呼氣의 二動과 吸氣의 二動사이에 다시 一動이 있는데 이것은 中焦의 脾胃에서 行하는 것이다.

位置上으로도 上焦의 心肺와 下焦의 肝腎사이에 中焦인 脾胃가 있으므로 呼吸之間의 一動을 脾胃에서 行하는 것이다. 이러한 一動을 通해서 脾胃는 五穀과 五味를 受納해서 各 臟腑로 營養

을 供給한다.

難經本義에도 이러한 說이 있으며 呼吸之間의 中間에 脾胃脈이 있다고 해서 中氣라고 일컫는다.

輕按하여 浮脈을 取하는 것은 陽이고 重按하여 沈脈을 取하는 것은 陰이다.

“牢而長者肝也”에서 牢脈은 實大하면서 長한 것을 뜻하고 長脈은 三關에 桴 차는 것을 말한다.

難經本義에 따르면 心肺는 모두 浮하지만 心은 陽中之陽이므로 浮하면서 大하고 肺는 陽中之陰이므로 그 脈이 浮하나 短濇하다.

그리고 肝腎이 모두 沈하나 肝은 陰中之陽이므로 그 脈이 牢하고 長하며 腎은 陰中之陰이므로 그 脈이 濡하고 脈 때 實한 것이다. 腎이 이러한 것은 外柔內剛으로 물의 象이다.

<難經古義>에는 心肺脈이 恒常 浮한 것은 寸脈이 언제나 그러한 까닭이고, 肝腎脈이 恒常 沈한 것은 尺脈이 언제나 그러한 까닭이라고 했다.

脾脈은 兩關에 있어서 尺과 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니 그 脈을 中에 있다고 하며 中이라고 하는 것은 關脈을 말하는 것이다.

“脾者中州, 故其脈在中”이라는 뜻은 나라에 比喩하면 中州에 該當되는데 脾의 脈도 中間에 있어서 浮하지도 沈하지도 않는 것이다. 脾脈을 診察할 때는 呼吸의 中間을 보아야 하는데 이때 浮하지도 沈하지도 않는 것이 脾脈으로써 和緩한 脈象이다.

六脈에 關해서도 難經에서는 “浮沈長短滑濇”으로 하는데 “浮沈遲數虛實”로써 六脈을 삼는 理論도 있다.

위 解釋의 一陽二陰에 있어서 다른 說도 있는데 이것을 長而沈濇으로 한 것은 浮而濇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앞의 一陰二陽의 沈滑而長과 反對概念이 成立 되는 것이다.

“一陽三陰”에서 脈이 沈, 濇, 短 하고 때때로 浮하다는 것은 陰성이 너무 強해서 浮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狀況이다. 마찬가지로 “一陰三陽”에서 脈이 浮, 滑, 長하고 때때로 沈하다는 것은 陽성이 너무 強해서 沈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狀況이다.

“各以其經所在, 名病逆順也”에서 經絡마다에 呼

르는 六脈과 病을 보아서 相順하면 易治이며 相逆하면 難治이다.

5. 五難

五難曰.脈有輕重,何謂也?然,初持脈,如三菴之重,與皮毛相得者,肺部也.如六菴之重,與血脈相得者,心部也.如九菴之重,與肌肉相得者,脾部也.如十二菴之重,與筋平者,肝部也.按之至骨,舉指來疾者,腎部也.故曰輕重也

(解釋)

脈에는 輕重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일컫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처음 脈을 잡아서 容 세알의 무게로 皮毛의 部位(肺)를 보고, 容 여섯알의 무게로 눌러서 血脈의 部位(心)을 보고 아홉알의 무게로 눌러서 肌肉의 部位(脾)를 보고 열두알의 무게로 筋(肝)을 본다. 눌러서 骨에 다다르면 손가락을 살짝 떼어서 疾(實)한 것이 腎의 脈이다.

이러한 것이 脈의 輕重의 理致이다.

(參考)

診脈에는 많은 方法이 있는데 手指의 힘을 輕按 하거나 重按해서 臟器의 位置를 잡는데 이것은 浮로써 心肺를 보고 中으로써 脾를 보고 沈으로써 肝腎을 보는 것이다. 輕重의 基準은 容 몇 개의 무게인지에 따라 한다. 이러한 方法은 素問,靈樞에는 없는 것으로 難經에서 登場하는 것이다.

“菴(초)”라고 하는것은 容을 總稱해서 일컫는 말이다. 容 三丸의 무게로 눌러서 皮毛의 部位(肺의 部位)를 判斷하고 容 여섯알의 무게로 血脈의 部位(心脈의 部位)를 診脈하고 容 아홉알의 무게로 肌肉(脾)를 열두알의 무게로 筋(肝)을 살피는 것이다.

“按之至骨,舉指來疾者,腎部也”에서 容 열두알의 무게로 누른 후에 그보다 더욱 힘을 주는 段階는 열다섯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만큼의 힘으로 누르면 骨에 다다르게 되므로 그에 關한

言及은 없는 것 같다. 骨에 다다랐을 때 손가락을 약간 떼어서 疾(實한 것을 뜻함. 여기서는 快速의 뜻은 없다.)하면 腎의 脈이다.

그런데 이러한 五難에 登場하는 脈法은 臨床에서 應用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實際 診脈에 있어서는 寸脈은 浮하고 尺脈은 沈한 傾向이 많은데 五難에서 처럼 容알의 數에 반드시 얽매이지 말고 輕按과 重按의 정도를 參考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難經本義>¹⁶⁾에 따르면 肺는 가장 윗쪽에 있으며 皮毛를 主하므로 脈을 볼 때 容 세알의 무게로 누르고, 肺의 아래에 있는 心(主血脈)은 容 여섯알 - 心의 아래에 있는 脾(主肌肉)는 容 아홉알 - 脾의 아래에 있는 肝(主筋)은 容 열두알 - 肝의 아래에 있는 腎(主骨)은 指가 이미 骨에 다다랐으므로 더 以上 重按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일이므로 손가락을 약간 떼 때 疾(實)한 것으로 判斷한다.

여기서 輕重을 말하는 것은 浮,中,沈에 關한 것이므로 오늘날 診脈을 할 때 그 程度로 應用하면 될 것이다.

6. 六難

六難曰.脈有陰盛陽虛,陽盛陰虛,何謂也? 然,浮之損小,沈之實大,故曰陰盛陽虛.沈之損小,浮之實大,故曰陽盛陰虛.是陰陽虛實之意也.

(解釋)

六難에서 이르기를 脈에는 陰盛陽虛와 陽盛陰虛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렇하다. 浮한곳을 取하여 損小(虛)하고 沈按하여 實大한 것을 陰盛陽虛라고 하고 沈按하여 損小(虛)하고 浮按하여 實大한 것을 陽盛陰虛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陰陽虛實의 뜻이다.

(參考)

“陰盛陽虛,陽盛陰虛”라는 것만 나올뿐 陰陽俱虛 或은 陰陽俱實은 說明되어 있지않다. 여기서

16) 吳瑣村, 難經本義, 前揭書

實하다는 것은 邪氣가 實하다는 것이고 虛하다는 것은 正氣가 虛하다는 것이다. 六難에서는 浮沈의 觀點에서 陰陽虛實을 論했다.

<難經本義>¹⁷⁾에 따르면 浮沈은 指力の 輕重을 말하는 것이고 盛虛는 陰陽의 盈虧를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輕按하는것은 陽의 領域을 取하는 것이고 重按하는 것은 陰의 領域을 取하는 것이다.

어느 部位에서든 이러한 理論을 追論해서 따르면 될 것이다.

<難經古義>에 따르면 六難의 說이 五十八難의 三節에 있는것과 비슷하다.

다른사람은 “陽虛陰盛”과 “陽盛陰虛”를 傷寒論에서 말하는 表裏의 證라고도 하지만 이는 前篇의 浮沈으로써 陰陽虛實을 診斷하는 것이므로 잘못 읽지말라고 한다.

7. 七難

七難曰.經言少陽之至,乍小乍大,乍短乍長,陽明之至,浮大而短,太陽之至,洪大而長,太陰之至,緊大而長,少陰之至,緊細而微,闕陰之至,沈短而郭,此六者,是平脈耶?然,皆王脈也.

其氣以何月各王幾日?然,冬之至後,得甲子,少陽王,復得甲子陽明王,復得甲子太陽王,得甲子太陰王,復得甲子少陰王,復得甲子闕陰王,王各六十一,六六三百六十一,以成一歲,此三陽三陰之王時日大要也.

(解釋)

七難에 이르기를 素問에 少陽의 時候가 되면 忽然히 작아지고 忽然히 커지며 忽然히 短하고 忽然히 長하다.陽明의 時候가 되면 脈이 浮하고 短하며 太陽의 時候가 되면 脈이 洪하고 長하다.太陰의 時候가 되면 脈이 緊하고 長하다.少陰의 時候가 되면 脈은 緊細하고 微하다.闕陰의 時候가 되면 脈은 沈短이 곁친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脈은 平脈입니까?

그렇다 그것은 王脈(그 時候에 旺盛한 脈)이다.

그 氣들은 어느달에 가장 旺盛해 지는가?

그것은 이렇다. 冬至뒤에 甲子日(六十日)이 지나면 少陽脈이 旺盛해지며, 다시 六十日이 지나

면 陽明脈이 旺盛해지며 다시 六十日이 지나면 太陽脈이 旺盛해진다. 다시 六十日이 지나면 太陰脈이 旺盛해지고 그 다음에는 少陰,闕陰의 脈이 旺盛해 지는 것이다.

한 時候는 六十日이므로 여섯 개의 時候는 三百六十日으로써 한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三陽三陰의 時日의 大要인 것이다.

(參考)

“經言少陽之至,乍小乍大”에서 經은 素問의 <平人氣象論>을 말한다.

一年을 六氣로 나누는데 一期를 六十日로 하고 少陽,陽明,太陽,太陰,少陰,闕陰의 六期이다.

少陽의 時候는 陽曆 二,三月에 該當되는데 이 시기는 陽氣가 처음 나타나면서 목은 겨울의 찬 氣運이 아직 남아있는 때여서 陽脈인 大脈,長脈이 나타나면서 陰脈인 小脈,短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少陽의 時期에는 陰陽交錯의 날씨가 많은 것이다.

이 理論이 形成될 때의 基準은 古代中國 北方인데 다른 地域에서는 氣候가 맞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參酌해서 할 것이다. 陽明의 時候는 陽曆 四,五月인데 溫暖하고 陽氣가 旺盛할 때이다.

다만 밤늦게 약간의 寒冷한 氣運이 있다.

그래서 陽脈인 浮大脈과 陰脈인 短脈이 함께 있는것이다.

太陽의 時候는 陽曆 六,七月인데 이때는 炎熱의 더운기운만 있으므로 사람의 脈도 洪大而長하다. 이때는 陰脈은 전혀없다.

太陰의 時候는 陽曆 八,九月인데 이때는 夏節의 暑氣가 많이 있지만 朝夕으로 서늘한 느낌이 있으므로 大,長의 陽脈과 더불어서 緊한 陰脈이 나타난다.

少陰의 時候는 陽曆으로 十月,十日月로 寒氣만 있고 따뜻한 氣運은 전혀 없으므로 사람의 脈도 陰脈인 緊,細,微만 나타난다.

闕陰의 時候는 陽曆 十二月,一月로 一年中 寒冷한 氣運이 가장甚한 때이므로 沈,短脈이 重

17) 吳墳村, 難經本義, 前掲書

復되어서 나타난다.

“然,皆王脈也”에서 王은 旺盛하다는 뜻이다. 時候와 調和된 正常的인 脈을 旺盛하다는 뜻인 王으로 쓴 것은 陽氣가 旺盛한 時候이든 陰氣가 旺盛한 時候이든간에 그에 따라서 人體의 氣도 그와 함께 旺盛하다는 뜻이다.

王脈이란 平脈과도 같은 뜻이고 病이 없는 脈이다.

8. 八難

八難曰.寸口脈平而死者,何謂也? 然,諸十二經脈者,皆係於生氣之原.所謂生氣之原者,謂十二經之根本也,謂腎間動氣也.此五臟六腑之本,十二經脈之根.呼吸之門,三焦之原,一名守邪之神.故氣者,人之根本也,根絕則莖葉枯矣.寸口脈平而死者,生氣獨絕於內也.

(解釋)

八難에 이르기를 寸口脈이 平한데 죽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다.

모든 十二經脈은 모두 生氣의 根源에 이어져 있고 이는 所謂 生氣之原이라하고 十二經脈의 根本이라고도 하고 腎間動氣라고도 한다.

이것은 五臟六腑의 根本이며 十二經脈의 根本이며 呼吸의 門이며 三焦의 根源이다. 一名 邪를 막는 神이라 한다.

그러므로 氣는 사람의 根本이며 뿌리가 끊어지면 줄기와 잎이 말라버리는 것이다.

寸口脈이 平脈인데 죽는것은 生氣가 內部에서 끊어진 탓이다.

(參考)

八難에서는 寸口脈과 病狀이 一致하지 않는것에 對해서 論한다.

여기서는 生命體의 根本元氣인 腎間動氣

9. 九難

九難曰: 何以別知藏府之病耶?

然, 數者府也, 遲者藏也. 數則爲熱, 遲則爲寒. 諸陽爲熱, 諸陰爲寒, 故以別知藏府之病也.

(解釋)

九難에 이르기를 어떻게 臟과 腑의 病을 區別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하다. 脈數한 것은 腑病이고 脈遲한 것은 臟病이다.數脈은 熱이며 遲脈은 寒이다. 모든陽은 熱이고 모든陰은 寒이다. 그것으로써 臟腑病을 區別하는것이다.

(參考)

脈에 따라서 臟病과 腑病을 區別하는 것에 關해서 說한 것이다. 五十二難과 五十四難과도 連結되는 것으로 脈狀에 따라서 陰陽을 區別해서 臟病, 腑病을 判斷한다. 臟病은 無熱, 寒性, 脈遲한 것으로 머물러서 옮기지 않고 그것이 勝하는 곳으로 轉變되므로 難治이다. 腑病은 有熱, 熱性, 脈數한 것으로 上下로 옮겨 다녀서 일정한곳에 있지않고 그자로 轉變되므로 易治이다.

<難經本義>¹⁸⁾에 따르면 一呼吸을 一息이라 하는데 一息에 脈은 四또는 五至한다. 그것을 基準으로 脈數과 脈遲를 區分한다.

10. 十難

十難曰: 一脈爲十變者, 何謂也?

然, 五邪剛柔相逢之意也. 假令心脈急甚者, 肝邪干心也, 心脈微急者, 膽邪干小腸也. 心脈大甚者, 心邪自干心也, 心脈微大者, 小腸邪自干小腸也. 心脈緩甚者, 脾邪干心也, 心脈微緩者, 胃邪干小腸也. 心脈澹甚者, 肺邪干心也, 心脈微澹者, 大腸邪干小腸也. 心脈沉甚者, 腎邪干心也, 心脈微沉者, 膀胱邪干小腸也. 五藏各有剛柔邪, 故令一脈輒變爲十也.

(解釋)

十難에 이르기를 하나의 脈이 열가지로 變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五邪와 剛柔로써 結合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서 心脈이 急甚한 脈이면 肝邪가 心을 侵入한것이고 心脈이 약간 急(弦)하면 膽邪가 心을 侵入한 것이다. 心脈이 甚하게 大하면 心邪가 心에 스스로 病이 된 것이고 心脈이 微

18) 吳瑛村, 難經本義, 前掲書

大하면 小腸邪가 스스로를 病되게 하는 것이다. 心脈이 甚하게 緩할때는 脾邪가 心을 侵入한 것이고 微緩할때는 胃邪가 小腸에 侵入한 것이다. 心脈이 甚하게 濇한 것은 肺邪가 心에 侵入한 것이고 微濇할때는 大腸邪가 小腸을 侵入한 것이다. 心脈이 甚하게 沉한 것은 腎邪가 心을 侵入한 것이고 微沉한 것은 膀胱邪가 小腸을 侵入한 것이다. 五臟에는 剛柔(陰陽)의 邪가 있어서 脈이 하나에서 열가지로 變하게 한다.

(參考)

一脈이 十變한다는 것은 左右寸關尺六部位에서 右側尺部를 除外하면 五臟에 對應하는 部分이 되는데 여기서 十種의 脈狀을 보고 病의 轉變을 把握한다는 뜻이다.

五邪란 虛邪(從後來者),實邪(從前來者),賊邪(從所不勝來者),微邪(從所勝來者),正邪(自病)이다.

四十九難에 있는 五邪(中風,傷暑,傷寒,中濕,飮食,勞倦)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剛柔에 있어서는 剛은 陰이며 五臟은 이에 屬한다.

柔는 陽이며 五腑가 이에 屬한다.

剛柔論은 三十三難의 五臟剛柔論,六十四難의 并榮俞經合 剛柔論이 있다.

“心脈急甚者”에서 “急”은 弦脈을 意味하고 甚,微는 病의 輕重을 뜻하는데 甚은 重病으로 臟病을 말하고 微는 輕病으로 腑病을 말한다.

十難에서는 各 臟腑의 固有한 脈狀이 登場하는데 急(弦)脈은 肝脈이고 大(洪)脈은 心脈, 緩脈은 脾胃脈, 濇脈은 肺脈, 沈(石)脈은 腎脈이다.

11. 十一難

十一難曰 : 經言,脈不滿五十動而一止, 一藏無氣者, 何藏也?

然, 人吸者隨陰入, 呼者因陽出. 今吸不能至腎, 至肝而還, 故知一藏無氣者, 腎氣先盡也.

(解釋)

<靈樞·根結篇>¹⁹⁾에 이르기를 脈이 五十動이 되지 않아서 한번 쉬는 것은 一臟에 氣가 없는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느 臟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사람이 吸氣를 하면 陰氣를 받아 들이고 呼氣를 하면 陽氣를 내 놓는 것이다. 이제 吸氣가 腎에 이르지 못하고 肝에서 呼氣로 바뀌면 腎 一臟은 氣를 받지 못하여 腎氣가 먼저 枯渴되는 것이다.

(參考)

여기서 말하는 經은 靈樞 根結篇을 말한다. 吸氣는 肝腎의 下焦로 하고 呼氣는 心肺의 上焦로 하는데 이는 四難에 그 說明이 提示되어있다. 吸氣가 充分하지 못하여 腎에 까지 到達하지 못하고 中途에 있는 肝에 이르렀다가 呼氣로 吐出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腎氣가 枯渴된다. 結代脈이 나타나는 것은 呼吸과 臟氣가 密接한 關係에 있으므로 臟氣가 呼吸에 따라 繼續 이어지지 못해서 結代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呼吸은 가장 陰의이고 深部인 部位부터 不足해 지므로 脈을 五十動으로 基準할 때 몇번 動할 때 一息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臟氣가 不足한지를 알수 있는 것이다.

<難經本義>²⁰⁾와 <靈樞 第五篇>²¹⁾에 이르기를 사람은 一夜에 五十營을 循環하는데 營이 五臟의 精이 되는 것이다.

그數에 應하지 않는 것은 狂生이라고 한다.

五臟이 氣를 받을 때 그脈口에 알맞은 數가 있는데 五十動하는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으면 五臟이 모두 氣를 잘 받고 있는 것이다. 四十動에 한번을 거르면 一臟이 氣를 받지 못한다. 三十動에 한번 거르면 二臟이 氣를 받지 못한다.

二十動에 한번 거르면 三臟이 氣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十動에 한번 거르면 四臟이 氣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19)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20) 吳埴村, 難經本義, 前掲書

21)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十動이 되지 않아서 거르는 것은 五臟이 모두 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腎臟이 五臟中에 가장 먼곳(깊은곳)에 있으므로 五十動에 못미쳐서 한번을 거르면 腎氣가 枯渴된 것을 아는것이다. 腎-肝-脾-心-肺의 順으로 차차로 알아지므로 몇번 動하는데 한번 거르는가를 보고 어느 臟의 氣運이 枯渴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12. 十二難

十二難曰：經言五藏脈已絕於內，用鍼者，反實其外，五藏脈已絕於外，用鍼者，反實其內。內外之絕，何以別之？

然，五藏脈已絕於內者，腎肝氣已絕於內也，而醫反補其心肺。五藏脈已絕於外者，其心肺已絕於外也，而醫反補其腎肝。陽絕補陰，陰絕補陽，是謂實實虛虛，損不足益有餘，如此死者，醫殺之耳。

(解釋)

十二難에 이르기를 靈樞에 五臟의 脈이 內에서 絶하면 鍼으로써 그 外를 反對로 實하게 하고 五臟脈이 外에서 絶하면 鍼으로써 그 內를 實하게 한다고 했는데 內外가 絶한 것을 어떻게 區別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五臟脈이 內絶한 것은 腎肝의 氣가 內에서 絶한것인데 醫者는 反對로 心肺를 補한다.

五臟脈이 外絶한 것은 心肺脈이 外에서 絶했다는 것인데 醫者는 反對로 腎肝을 補한다. 陽絶하면 補陰하고 陰絶하면 補陽하는데 이는 實한 것을 實하게 하고 虛한 것을 虛하게 하여 不足한 것을 더 덜어내고 有餘한 것을 더 보태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醫者가 죽이는 것이다.

(參考)

여기서 經이라 함은 <靈樞 九鍼十二篇>²²⁾이다. “內”라는 것은 靈樞에 말하는 沈脈을 뜻하

고 難經에서 말하는 肝腎이다. “外”라는 것은 難經에서 말하는 心肺이다.

“絶”은 虛라는 뜻이다.

靈樞에 이르기를 五臟의 脈이 內에서 끊어지면 肝腎의 脈이 虛해 지는데 이때 鍼으로 心肺를 補하므로써 이를 實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相反된 治法이다.

內는 陰이고 外는 陽이므로 요즈음에는 陰虛하면 補陽을 해서 實한 것을 다시 實하게 하는 것이다.

五臟의 脈中에서 外의 陽部인 心肺가 虛해지면 鍼으로 肝腎을 補한다고 하는데 이는 誤治이며 虛한 心肺를 補해야 하는 것이다.

“內外之絶,何以別之?”에서 靈樞에서는 <小鍼解篇>²³⁾에서 浮沈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難經에서는 四難의 呼吸陰陽論과 五難의 浮沈論으로 다소 進歩된 理論이다.

外絶은 陽虛陰實이고 內絶은 陰虛陽實이다.

<難經本義>²⁴⁾에 따르면 靈樞 第一篇에 鍼을 쓰려면 먼저 診脈을 해서 고치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본다. 그 三篇에 五臟의 氣가 內에서 絶하면 反對로 外의 病處를 取해서 陽經의 合穴에 留鍼하여 陽氣를 이르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內는 더욱 枯渴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五臟의 氣가 外에서 絶하면 陰經의 輸穴을 取하여 陰氣를 이르게 한다. 그러면 陽氣가 反對로 入하게 되는데 이를 逆이라한다. 그러면 陰氣가 有餘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難經古義>에 따르면 靈樞 第三篇에 五臟의 氣가 內에서 絶하여 脈口에 이르지 않으면 反對로 外의 陽經의 合穴을 취해서 陽氣가 이르면 內는 더욱 枯渴되어서 사람이 죽으며, 五臟의 外가 絶하여 脈口에 이르지 않으면 反對로 四肢의 輸穴에 留鍼해서 陰氣를 이르게 하면 陽氣가 反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

22)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23)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24) 吳埴村, 難經本義, 前掲書

<張會卿>이 말하기를 脈口가 浮虛해서 세계 누르면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을 內絶해서 이르지 않는것이라고 하며 臟氣가 虛한것이라고 한다.

脈口가 沈微해서 가볍게 누르면 느끼지 못하는 것을 外絶해서 이르지 않는것이라고 하는데 陽이 虛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理論은 靈樞의 理論을 變用한 것이다.

이는 陰虛하면 補陽하고 陽虛하면 補陰하는 것인데 誤治인 것이다. “素問”에 말하기를 臟을 治하려면 俞穴을 取하고 腑를 治하려면 合穴을 取하라고 하는 것이 正道인 것이다.

13. 十三難

十三難曰：經言，見其色而不得其脈，反得相勝之脈者即死，得相生之脈者，病即自已。色之與脈當參相應，爲之奈何？

然，五藏有五色，皆見於面。亦當與寸口尺內相應。假令色青，其脈當弦而急；色赤，其脈浮大而散，色黃，其脈中緩而大；色白，其脈浮濇而短；色黑，其脈沉濡而滑。此所謂五色之與脈，當參相應也。脈數，尺之皮膚亦數；脈急，尺之皮膚亦急；脈緩，尺之皮膚亦緩；脈濇，尺之皮膚亦濇；脈滑，尺之皮膚亦滑。

五藏各有聲，色，臭味，當與寸口尺內相應。其不相應者病也。假令色青，其脈浮濇而短，若大而緩爲相勝；浮大而散，若小而滑爲相生也。

經言，知一爲下工，知二爲中工，知三爲上工，上工者十全九，中工者十全八，下工者十全六，此之謂也。

(解釋)

十三難에 이르기를 靈樞의 邪氣臟腑病形篇에 色을 볼 때 脈과 相勝하면 죽는 病이고 相應하면 病이 낫는 것이라 하는데 色과 脈이 相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五臟은 五色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의 色과 寸口脈과 尺膚가 相應하는것이다. 假令 青色이면 脈이 마땅히 弦急하고 赤色이면 脈이 浮大하고 散하다. 黃色이면 脈이 緩하고

大하다. 白色이면 脈이 浮濇하고 短하다.

黑色이면 脈이 沉濡하고 滑하다. 이것이 五色과 脈이 相應하는 것인데 脈數하면 尺의 皮膚도 亦是 數하고 脈急하면 尺의 皮膚도 亦是 急하다. 脈緩하면 尺의 皮膚도 緩하고 脈濇하면 尺의 皮膚도 亦是 濇하다. 脈滑하면 尺의 皮膚도 亦是 滑하다. 五臟은 各各의 聲,色,臭味가 있어서 마땅히 寸口, 尺內와 相應한다. 그것이 相應하지 않으면 病이 되는 것이다.

假令 色靑하면서 그 脈이 浮濇而短하거나 大 而緩한 것은 相勝이고 浮大而散하거나 小 而滑한 것은 相生이다. 靈樞에 말하기를 色,脈,尺膚 中에서 하나만 알면 下工이고 두 개를 알면 中工이고 세 개를 모두 알면 上工이라한다.

上工은 열에 아홉을 고치는 사람이고 中工은 열에 여덟을 고치는 사람이고 下工은 열에 여섯을 고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것이다.

(參考)

“經”이란 靈樞의 <邪氣臟腑病形篇>²⁵⁾을 말한다. 病人의 顏色과 寸口脈이 五行의으로 相應하면 無病이고 相勝關係에 있으면 重病이다. 例를 들어서 顏色이 靑한 것은 肝病의 色인데 그 脈이 弦脈이면 相應의인 脈이므로 良性病이며 脈이 沈脈이면 腎脈이므로 相應하는 關係이고 浮大한 脈은 心脈으로 相應하는 脈이므로 스스로 낫는 病이다.

濇脈은 肺脈이고 緩脈은 脾脈인데 이 脈들은 相勝하는 脈이어서 낫지 않고 오래지 않아서 죽는 것이다.

<難經本義>²⁶⁾에 靈樞 第四篇에 이르기를 色을 보고 病을 아는 것은 明이라 하고 脈을 눌러 보아서 그 病을 아는 것은 神이라하고 물어서 그 病을 아는 것은 工이라한다. 色,脈,形肉이 서로 相應하는바를 잃지 않았을때 色이 靑하면 脈은 弦할것이고 色赤하면 脈이 鉤하고 色黃하면 脈代하고 白色이면 脈毛하고 色黑하면 脈石할 것이다. 色을 보아서 脈과 맞지 않으면 이를 脈

25)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26) 吳埴村, 難經本義, 前掲書

과 相得하지 않는다고한다. 이때 相勝의인 맥이면 죽는 것이고 相生的인 脈이면 낫는 것이다.

“尺之皮膚”라는 것은 肘關節 안쪽에서 腕關節쪽으로 二~三寸의 部位에 있는 皮膚色을 말하는데 尺膚라고 하기도 한다. 脈數하면 尺膚의 색이 熱이 있으며, 脈急(弦脈)하면 尺膚도 緊張되고 脈緩하면 尺膚도 緩하며 脈澹하면 尺膚가 乾燥하고 潤氣가 없고 脈滑하면 尺膚가 潤滑하다. 이처럼 脈狀과 尺膚의 색이 相應하면 無病한 것이고 相勝(剋)하면 죽는 것이다. <難經本義>에 따르면 肝을 爲主로 例를 들어서 色靑한 것은 肝木의 本來 色인데 그 脈이 弦하면 相應하는 것이다. 그런데 脈이 浮澹而短하면 이것은 肺의 特徵的 脈이다. 이는 相勝의 脈인데 金剋木의 原理인 것이다. 만일 大而緩한 脈이라 하면 이는 脾脈인데 이것도 相勝의 脈이다. 木剋土하기 때문이다. 浮大而散한 것은 心火의 脈인데 이는 木生火로 相生이고 小而滑한 것은 腎水의 脈으로 水生木으로 相生이다. 相生의 脈이 있으면 病이 스스로 낫는 것이고 豫後도 良好하다. “經言,知一爲下工, 知二爲中工, 知三爲上工, 上工者十全九, 中工者十全八, 下工者十全六, 此之謂也.”에서는 顔面의 五色과 五臟의 脈狀,尺膚의 緊張, 熱,潤 등 三個觀點을 보고 相應,相勝을 判別하고 生死吉凶을 알아야 하는데 醫者가 三個觀點을 모두 살필수있으면 上工으로 열에 아홉 以上을 治癒할 수 있고 二個觀點을 살필수 있으면 中工으로 열에 여덟을 治癒할 수 있고 한가지 觀點만을 살피면 下工으로 열에 여섯을 治癒할 수 있다. <難經本義>에 五節이 있는데 一節은 問辭를 말하며,第二와 三節은 色,脈,形肉을 말하고 四節은 五臟이 가진 各各의 聲,色,臭,味를 말하는데 이들은 寸尺의 脈과 相應하고 있다. 色과 脈의 相應만을 말하고 聲,臭,味를 말하지 못한다면 病에 效驗을 볼수가 없다. 五節을 얼마나 알고 있는냐에 따라서 醫者의 上,中,下가 決定되는 것이다.

<難經古義>²⁷⁾에 따르면 靈樞에 이르기를 대

저 色과 脈이 尺膚와 相應하는데 桴鼓(부고)-북과 북채-가 서로 影響을 주는것과 같아서 서로 잃어버리는 바가 없는 것이다. 診脈의 主는 脈이지만 色과 尺膚의 候를 兼하는 것이 上工이며 이것이 옛날의 道理이다. 대저 五行의 道는 서로 生剋하는 固有의 理致가 있다.

色과 脈,尺膚가 相生하면 順이고 相剋하면 逆인 것이다. 逆하면 病이 한군데로 歸屬되지 않으므로 難治이고 順하면 두가지 以上의 證이 없으므로 易治하는 것이다.

色,脈,尺肉(尺膚) 以外에 聲,臭,味,液의 徵候를 보는 것이 옛날 聖賢의 診脈法이다. 色,脈,尺膚 세가지 中에서 脈이 主가 되지만 色과 尺膚는 것과 날개 같은 것이다.

14. 十四難

十四難曰：脈有損至，何謂也？

然，至之脈，一呼再至曰平，三至曰離經，四至曰奪精，五至曰死，六至曰命絕，此至之脈也。何謂損？一呼一之曰離經，二呼一至曰奪精，三呼一至曰死，四呼一至曰命絕，此損之脈也。至脈從下上，損脈從上下也。

損脈之病奈何？

然，一損損於皮毛，皮聚而毛落；二損損於血脈，血脈虛少，不能榮於五藏六府；三損損於肌肉，肌肉消瘦，飲食不能爲肌膚；四損損於筋，筋緩不能自收之；五損損於骨，骨痿不能起於床。反此者至脈之病也。從上下者，骨痿不能起於床者死；從下上者，皮聚而毛落者死。治損之法奈何？

然，損其肺者，益其氣；損其心者，調其榮衛；損其脾者，調其飲食，適其寒溫；損其肝者，緩其中；損其腎者，益其精。此治損之法也。

脈有一呼再至，一吸再至；有一呼三至，一吸三至；有一呼四至，一吸四至；有一呼五至，一吸五至；有一呼六至，一吸六至；有一呼一至，一吸一至；有再呼一至，再吸一至，有呼吸再至。脈來如此，何以別知其病也？

然，脈來一呼再至，一吸再至，不大不小曰平，一呼三至，一吸三至，爲適得病，前大後小，卽頭痛，

27)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技, 1989

目眩 ; 前小後大, 卽胸滿短氣. 一呼四至, 一吸四至, 病欲甚, 脈洪大者, 苦煩滿 ; 沉細者, 腹中痛 ; 滑者傷熱 ; 濇者中霧露. 一呼五至, 一吸五至, 其人當困, 沉細夜加, 浮大晝加, 不大不小, 雖困可治, 其有大小者難治. 一呼六至, 一吸六至爲死脈也, 沉細夜死, 浮大晝死. 一呼一至, 一吸一至, 名曰損, 人雖能行, 猶當着床. 所以然者, 血氣皆不足故也. 再呼一至, 再吸一至, 呼吸再至, 名曰無魂, 無魂者, 當死也, 人雖能行, 名曰行尸.

上部有脈, 下部無脈, 其人當吐, 不吐者死. 上部無脈, 下部有脈, 雖困無能爲害. 所以然者, 譬如人之有尺, 樹之有根, 枝葉雖故槁, 根本將自生, 脈有根本, 人有元氣, 故知不死.

(解釋)

十四難에 이르기를 脈에는 損과 至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脈이 이르러 때 一呼에 二至 것이 平脈이다. 三至하는 것이 離經이며 四至하는 것은 奪精, 五至하는 것은 死, 六至하는 것을 命絶이라고 한다. 이것이 至脈이다.

損脈은 어떤것입니까? 一呼에 一至하는 것이 離經, 再呼에 一至하는 것이 奪精, 三呼에 一至하는 것이 死, 四呼에 一至하는 것이 命絶인데 이것이 損脈이다.

至脈은 從下하여 上으로 가고 損脈은 從上하여 下로 간다. 損脈의 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다. 一損은 皮毛가 損한것이고 皮膚가 주름이 지면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다. 二損은 血脈이 損한것인데 血脈이 虛少하여 五臟과 六腑에 榮養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三損은 肌肉이 損한것인데 肌肉이 消瘦하면서 飲食을 먹어도 肌肉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四損은 筋이 損한것인데 筋이 늘어져서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다. 五損은 骨이 損한것인데 骨이 萎縮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反對되는 것이 至脈의 病이다.

“從上下者”(損脈을 말함)는 骨이 萎縮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從下上者”(至脈)는 皮膚가 주름지고 머리털이 빠지면

죽는 것이다.

損病을 治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肺가 損한 것은 益氣하고 心이 損한 것은 그 榮衛를 고르게 하고 脾가 損한 것은 飲食을 고르게 하여 寒溫을 適當히 한다. 肝이 損한 것은 그것을 緩하게 하고 腎이 損한 것은 精을 도운다. 이것이 損病을 治하는 法이다.

脈에는 一呼 再至, 一吸 再至 하는 것, 一呼三至, 一吸三至하는 것, 一呼四至, 一吸四至하는 것, 一呼五至, 一吸五至하는 것, 一呼六至, 一吸六至하는 至脈이 있고 一呼一至, 一吸一至하는 것, 再呼一至, 再吸一至하는 것, 呼吸間에 再至하는 脈이 있는데 어떻게 그 病을 區分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脈이 一呼에 再至하고 一吸에 再至하면서 大하지도 小하지도 않은 것이 平脈이다. 前大後小(浮大沉小)한 脈이면 頭痛, 目眩하고 前小後大(浮小沉大)한 脈이면 胸滿, 短氣하다.

一呼四至, 一吸四至한 것은 病이 心해지려고 하는것인데 이때 脈이 洪大하면 苦煩滿하고 脈이 沉細하면 腹中痛하고 滑脈이면 傷熱한것이고 濇脈은 霧露의 濕邪가 있는 것이다.

一呼五至, 一吸五至하면 사람이 困에 든것인데 脈이 沉細하면 밤에 더욱 極甚해지고 脈이 浮大하면 낮에 더욱 極甚해진다.

脈이 大하지도 小하지도 않으면 비록 困에 든것일지라도 治療할 수 있는 것이다. 脈이 大, 小가 있으면 難治이다.

一呼六至, 一吸六至한 것은 死脈인데 脈이 沉細하면 밤에 죽게되고 浮大하면 낮에 죽게된다.

一呼一至, 一吸一至하면 損脈인데 사람이 비록 다닐수는 있으나 마땅히 寢床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血氣가 모두 不足해져 있기 때문이다.

再呼一至, 再吸一至하여 呼吸에 再至하는 것을 無魂이라 하는데 魂이 없는자는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다닐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尸體가 다니는 것과 같다.

上部가 脈이 있고 下部가 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땅히 吐해야 하는데 吐하지 못하면 죽는다.

上部가 脈이 없고 下部가 脈이 있으면 비록 困에 들어도 害가 없는데 그것은 이런 까닭이다. 사람에게 尺脈이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은데 가지와 잎이 비록 말라버렸다 하더라도 根本은 나중에 스스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脈에 根本이 있으면 사람에게 元氣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다.

(參考)

“脈有損至”에서 損은 遲脈을 말하고 至는 數脈을 말한다.

脈의 損에 따라서 離經, 奪精, 死, 絕命을 區分하며, 脈의 至에 따라서도 亦是 離經, 奪精, 死, 絕命을 區分한다.

脈의 損, 至를 區分하는 것은 第四難에 나오는데 一呼二動, 一吸二動, 呼吸之間 一動으로 五動하는 것이다.

“三至曰離經”에서 三至라고 하는 것은 呼氣에서 三至, 吸氣에서 三至, 呼吸之間에 六動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平脈에서 離脫되는 基準이 된다는 意味에서 離經이라고 하는 것이다.

“四至曰奪經”에서 脈이 一呼할 때 四至라고 하는 것은 平脈의 두배나 되는 數脈인데 이때 奪精이 일어난다고 하는 뜻이다. 卽時 精氣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狀態인 것이다.

“五至曰死”에서는 治療를 하더라도 살리기 어려운 狀態이다.

“六至曰命絕”까지 至脈(數脈)에서 나타나는 病的인 狀況이다.

이 難에서 말하는 脈의 基準인 呼吸은 醫者의 正常的인 呼吸을 지칭한다.

損脈(遲脈)에서도 그 程度에 따라서 離經, 奪精, 死, 命絶이 있다.

“至脈從上下, 損脈從上下也”는 病的 轉變 順序를 말하는 것인데 損脈(遲脈)은 病이 肺-心-脾-肝-腎의 順序로 오고, 至脈(數脈)은 腎에서 먼저 病이 와서 점차 肺쪽으로 轉變된다.

<難經本義>²⁸⁾에서 平人의 脈은 一呼에 再至하고 一吸에 再至하는데 더해지면 過한 것이고 줄어 들면 不及이다. 이것을 損과 至라고 하는데 離經이란 그 經이 常度를 離脫했다는 것이고 奪精이란 精氣가 衰奪한 것을 말한다. 至脈은 下를 따라서 逆上하는데 이는 腎에서 始作하여 肺로 轉變되는 것을 말한다. 損脈은 上을 따라서 下로 行하는데 肺를 始作으로 腎으로 轉變되는 것이다.

<難經古義>에는 至脈은 按하면 進하는 것이고 損脈은 按하면 退한다고 했다. 下部가 陰虛해서 陰中之陽이 升하는 것을 至라고 하고 上部가 陽虛해서 陽中之陰이 降하는 것을 損이라고 한다.

損脈에는 一부터 五損까지가 있다.

<難經本義>²⁹⁾에 肺主皮毛, 心主血脈, 脾主肌肉, 肝主筋, 腎主骨으로써 各各 그마다 損하는 바가 있는데 그 反對가 至脈이다. 損脈은 從上하여 下로 가고 至脈은 從下하여 上으로 간다.

“損其肝者, 緩其中.”은 素問의 臟氣法時論에 “肝若急, 急食甘以緩之”에서 따온 말이다.

<難經古義>에 損病은 皮聚(皮膚가 주름지는 것)에서 始作하여 骨이 萎縮되는 것에서 끝난다.

“前大後小”는 浮大, 沉小한 脈을 말하며 診脈할 때에 처음에 가볍게 눌렀을 때 大한 느낌이 있고 漸次 세게 눌렀을 때 小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上焦에 邪氣가 實해서 頭痛과 眩暈이 있다. 反對로 前小後大한 것은 浮則小하고 沉則大한 것인데, 沉則大에서는 邪氣가 沉한 裏部に 鬱滯되어 있어서 胸滿 浮則小에서는 上焦의 氣가 不足하여 呼吸短小한 것이다.

“不大不小, 雖困可治.”는 大脈이나 小脈에 치우침없이 中間에 있는 脈은 胃氣로 돌아올수 있는 脈이다.

“其有大者爲難治”는 大小가 不同한 脈이라는 뜻이며 이는 胃氣가 喪失된 脈이다.

“上部有脈 下部無脈, 其人當吐, 不吐者死.”에서는 上部(寸部)에 實邪가 있어서 吐逆해야 하는데 吐할수 없는 境遇는 逆氣할수 있는 힘이 없

28) 吳瑱村, 難經本義, 前揭書

29) 吳瑱村, 難經本義, 前揭書

는 것이므로 實邪가 鬱結되어 있는 것이다.

<難經本義>³⁰⁾에 李東垣이 말하기를 下部에 無脈한 것은 木鬱인데 飲食을 過飽하여 胸中の 太陰이 막힌 것이다.

春陽이 上行하지 못하여 木鬱되는데 이것은 達로써 治해야 하는데 吐하는 것을 말한다.

15. 十五難

十五難曰：經言春脈弦，夏脈鉤，秋脈毛，冬脈石，是王脈耶？將病脈也？

然，弦，鉤，毛，石者，四時之脈也。春脈弦者，肝東方木也。萬物始生，未有枝葉，故其脈之來，濡弱而長，故曰弦。夏脈鉤者，心南方火也。萬物之所茂，垂枝布葉，皆下曲如鉤，故其脈之來疾去遲，故曰鉤。秋脈毛者，肺西方金也。萬物之所終，草木華葉，皆秋而落，其枝獨在，若豪毛也。故其脈之來，輕虛而浮，故曰毛。冬脈石者，腎北方水也。萬物之所藏也。盛冬之時，水凝如石，故其脈之來，沉濡而滑，故曰石。此四時之脈也。如有變奈何？然，春脈弦，反者爲病。何謂反？然，其脈來實強，是謂太過，病在外，氣來虛微，是謂不及，病在內，氣來厭厭蟲蟲，如循榆葉曰平，益實而滑，如循長竿曰病，急而勁益強，如新張弓弦曰死。春脈微弦曰平，弦多胃氣少曰病，但弦無胃氣曰死。春以胃氣爲本。

夏脈鉤，反者爲病。何謂反？然，其氣來實強，是謂太過，病在外，氣來虛微，是謂不及，病在內。

其脈來累累如環，如循琅玕曰平；來而益數，如鷄舉足者曰病；前曲後居，如操帶鉤曰死。夏脈微鉤曰平，鉤多胃氣少曰病，但鉤無胃氣曰死，夏以胃氣爲本。

秋脈毛，反者爲病，何謂反？

然，其氣來實強，是謂太過，病在外；氣來虛微，是謂不及，病在內。其脈來藹藹如車蓋，按之益大曰平；不上不下，如循鷄羽曰病；按之蕭索，如風吹毛曰死。秋脈微毛曰平，毛多胃氣少曰病，但毛無胃氣曰死，秋以胃氣爲本。

冬脈石，反者爲病，何謂反？

然，其脈來實強，是謂太過，病在外；氣來虛微，是謂不及，病在內。脈來上大下兌，濡滑如雀之啄曰平；啄啄連屬，其中微曲曰病；來如解索，去

如彈石曰死。冬脈微石曰平，石多胃氣少曰病，但石無胃氣曰死，冬以胃氣爲本。

胃者，水穀之海，主稟四時，皆以胃氣爲本。是謂四時之變病，死生之要會也。脾者中州也，氣平和不可得見，衰乃見耳。來如雀之啄，如水之下漏，是脾之衰見也。

(解釋)

十五難에 이르기를 素問平人氣象論과 玉機眞藏論에 春脈은 弦하고 夏脈은 鉤하고 秋脈은 毛하고 冬脈은 石한데 이것은 王脈입니까 아니면 病脈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弦, 鉤, 毛, 石脈은 四時의 脈이다. 春脈은 弦한데 肝은 東方木으로 萬物이 새로이 태어나는 것으로 아직 가지에 잎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脈이 來하는 것은 濡弱하고 長하다. 그래서 弦이라고 한다.

夏脈은 鉤한데 心臟으로써 南方火이다. 萬物이 무성한 것이며 가지가 늘어지고 잎이 덮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래로 낚시 처럼 구불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 脈이 來하는 것은 疾하며 去하는 것은 遲하다. 그래서 鉤라고 한다.

秋脈은 毛인데 肺는 西方金이다. 萬物이 끝나는 곳이며 草木의 잎사귀가 모두 가을이면 떨어지고 그 가지가 홀로 남아 있는 것이 마치 豪毛와도 같다.

그러므로 그 脈이 來하는 것은 輕虛하고 浮해서 毛라고 한다.

冬脈은 石하다. 腎은 北方水인데 萬物이 갈무리 되는 곳이다.

盛冬에는 물이 돌처럼 영키므로 그 脈이 來하는 것은 沉濡하고 滑하다. 그래서 石이라고 한다. 이것이 四時의 脈이다.

變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다. 春脈은 弦한데 反하면 病이 된다.

무엇을 反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그 氣가 來하는 것이 實強하면 太過라고 하는데 病이 外에 있는 것이다.

氣來하는 것이 虛微하면 不及이라고 하는데 病

30) 吳頃村, 難經本義, 前揭書

이 內에 있다. 氣가 來하는 것이 厭厭菴菴해서 마치 버드나무 잎사귀 같이 도는 것을 平脈이라고 한다. 益實하고 滑하며 마치 긴 대나무끝과 같이 도는 것을 病이라고 하고 急하고 勤益強해서 마치 새 활과 같이 弦하면 죽는 것이다. 春脈이 微弦하면 平脈이고 弦한 것이 많고 胃氣가 적으면 病이다. 但只 弦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胃氣의 有無로써 春脈의 基本을 삼는다.

夏脈은 鉤한데 反하면 病이 된다. 무엇이 反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그 氣가 來하는 것이 實強한 것을 太過라고 하는데 病이 外에 있는 것이다. 氣가 來하는 것이 虛微하면 不及이라고 하는데 病이 內에 있는 것이다. 그 脈이 구슬처럼 이어져 와서 옥구슬 처럼 돌면 平脈이다. 來하는 것이 더욱 數해서 닭이 다리를 올리는 것과 같으면 病脈이고 前曲 後居하여 마치 낚시를 하는 것 같은 것은 死脈이다. 夏脈은 微鉤한 것이 平脈이며 鉤한 것이 많고 胃氣가 적으면 病이다. 但只 鉤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는 것이 죽는 것이다. 胃氣의 有無로써 夏脈의 基本을 삼는다.

秋脈은 毛脈인데 反하면 病이 된다. 무엇을 反이라 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그 氣가 來하는 것이 實強한 것을 太過라고 하는데 病이 外에 있는 것이다. 氣가 來하는 것이 虛微한 것을 不及이라고 하는데 病이 內에 있는 것이다. 그 脈이 오는 것이 藹藹(애애)하여 車를 덮은 것과 같고 누르면 益大한 것이 平脈인데 上도 아니고 下도 아니면서 닭의깃처럼 循環하는 것은 病脈이다. 놀라서 蕭索(소색)하여 바람이 一定하게 불어 오지 않는 것과 같이 해서 바람이 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으면 死脈이다. 秋脈이 微毛와 같으면 平脈이고 毛脈이 많고 胃氣가 적으면 病脈이다. 毛脈만 있고 胃氣가 없으면 死脈이다. 胃氣가 있고 없슴으로 가을의 脈의 基本으로 삼는다.

冬脈은 石脈이다. 反하면 病이 됩니까? 그렇다. 그 氣가 오는 것이 實強하면 이것은 太過이며 病이 外에 있는 것이다. 氣가 오는 것이 虛微한 것을 不及이라고 하는데 病이 內에 있는 것이다. 脈이 오는 것이 上은 大하고 下는 兌하여

濡滑하기가 참새가 쪼는 것과 같으면 平脈이고 連續으로 쪼면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면 病脈이다. 오는 것이 끈을 풀 듯이 하고 가는 것이 彈丸과 같이 하면 죽는 것이다. 冬脈이 微石한 것을 平脈이라고 한다. 石脈이 많고 胃氣가 적으면 病脈이고 石脈만 있고 胃氣가 없는 것은 죽는 것이다. 胃는 水穀之海이므로 四時에 나누어 주는 것을 主로 한다. 이것은 胃氣가 基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四時의 病을 區分해서 死生の 要會로 한다.

脾는 中州로써 平和하며 病이 없다. 衰弱해지면 病이 오는데 脈이 오는 것이 새가 쪼는 것과 같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脾가 病이 되는 것이다.

(參考)

十五難에서 말하는 經은 素問 平人氣象論, 玉機眞藏論이다.

“如有變奈何?”에서 變은 “難經本義”에 따르면 脈이 四時에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는 太過와 不及의 脈이 있다.

“其脈來累累如環如循琅玕曰平”에서 琅玕은 美玉을 말한다.

“前屈後居”에서 前後라는 것은 診脈할 때의 時間的 前後를 뜻한다. 屈은 曲을 뜻하여 鉤脈이라는 뜻이고 居는 不動한다는 뜻이다.

“其脈來藹藹如車蓋”에서 藹藹(애애)는 풀같은 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말하고 車蓋라고 하는 것은 작은 車에 裝飾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므로 그렇게 가벼워서 바람이 불어 오는 것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蕭索”은 바람이 東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뜻하는데 一定한 方向없이 散亂하게 불어 오는 것을 말한다.

<難經本義>³¹⁾에 春脈이 太過하면 사람이 善忘하고 忽忽眩冒하여 癰疾하고 不及하면 사람이 胸痛하고 등밑이 당겨서 양옆구리가 불룩하게 된다.

31) 吳瑭村, 難經本義, 前掲書

夏脈이 太過하면 사람이 身熱하고 盜汗이 아프고 汗이 난다.

不及하면 사람이 煩心하고 口로 가래와 침을 뱉고 아래로는 氣泄을 한다.

秋脈이 太過하면 사람이 逆氣하고 등이 아프며 慍慍(성내것)하다. 不及하면 사람이 기침을 하고 呼吸이 짧고 가래가 있다.

上氣하고 피를 보이며 아래로는 病癖이 들린다.

冬脈이 太過하면 사람이 解体(감질 나는것)에 들고 脊脈이 아프고 少氣하여 말이 하고싶지 않고 不及하면 사람이 굶은 것처럼 心懸하여 眇中(묘중)이 맑고 脊中이 아프고 小便이 變한다. 이것은 岐伯이 뜻이다.

16. 十六難

十六難曰：脈有三部九候，有陰陽，有輕重，有六十首，一脈變爲四時。離聖久遠，各自是其法，何以別之？然，是其病有內外證。其病爲之奈何？然，假令得肝脈，其外證：善潔，面青善怒；其內證：齊左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四肢滿閉，淋溼便難，轉筋。有是者肝也，無是者非也。

假令得心脈，其外證：面赤，口乾，喜笑；其內證：齊上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煩心，心痛，掌中熱而嘔。有是者心也，無是者非也。

假令得脾脈，其外證：面黃，善噫，善思，善味；其內證：當臍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腹腸滿，食不消，體重節痛，怠墮嗜臥，四肢不收。有是者脾也，無是者非也。

假令得肺脈，其外證：面白，善嚏，悲愁不樂，欲哭；其內證，齊右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喘欬，洒淅寒熱。有是者肺也，無是者非也。

假令得腎脈，其外證：面黑，善恐欠；其內證：齊下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逆氣，少腹急痛，泄如下重，足脛寒而逆。有是者腎也，無是者非也。

(解釋)

脈에는 三部九候가 있고 陰陽, 輕重이 있고 六十種이 있다.

一脈이 變해서 四時의 脈을 이룬다. 聖人

(黃帝와 岐伯)으로부터 오래전에 脈法이 나왔지만 各自의 脈法이 있는데 어떻게 區別하는가? 그것은 이렇다. 그 病에는 內外證이 있다.

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다.

假令 肝脈을 보면 外證은 清潔한 것을 좋아하고 얼굴이 푸르며 화를 잘낸다. 內證은 배꼽 왼쪽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牢(堅硬)하면서 아프다. 肝病이 있으면 四肢가 閉(浮腫)하며 小便不利하고 淋瀝이러한 症狀이 있어야 肝病이며 그렇지 않으면 肝病이 아니다.

假令 心脈을 보면 外證은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고 웃기를 잘한다. 內證은 배꼽 위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牢(堅硬)하면서 아프다. 그 病은 煩心하고 心痛이 있으면서 掌中에 熱이 있고 嘔(乾嘔)한다. 이러한 證狀이 있어야 心病이며 없으면 아니다. 假令 脾脈을 보면 外證은 얼굴이 누르고 트림을 잘하며 생각이 많고 맛을 잘 보게된다. 內證은 배꼽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牢(堅硬)하고 痛症이 있다.

그病은 배가 脹滿하고 먹어도 消化가 되지 않으며 게을러서 누워있기를 잘하고 四肢를 움직이기 싫어한다.

이러한 證狀이 있으면 脾病이고 없으면 아니다.

假令 肺脈을 보면 外證은 얼굴이 희고 善嚏(재채기를 잘하고) 슬퍼하며 즐거운 것이 없어서 울고싶어한다. 內證은 배꼽 오른쪽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牢(堅硬)하고 아프다.

그病은 기침과 가래가 있고 洒淅(惡寒을 뜻함)하는데 이러한 證狀이 있으면 肺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假令 腎脈을 보면 外證은 얼굴이 검고 恐欠(겁에 질려 하품처럼 하는것)을 잘한다. 內證은 배꼽 밑에 動氣가 있고 누르면 牢(堅硬)하고 아프다.

그病은 逆氣를 하고 小腹이 急痛하고 泄瀉를 하고 足脛(정강이 뼈)가 寒而逆(차고 상부로 熱이 逆上하는것)하다. 이러한 證狀이 있어야 腎病이고 없으면 아니다.

(參考)

<難經本義>³²⁾에 肝脈은 弦脈인데 肝은 膽과 함께 舍해져 淸淨之府를 이룬다. 그래서 善潔한다. 肝은 將軍之官이므로 善怒한다. 面靑한 것은 肝의 色이며 臍左는 肝之部인데 눌러서 牢若痛한 것은 肝病이다.

17. 十七難

十七難曰：經言,病或有死, 或有不治自愈, 或連年月不已. 其死生存亡, 可切脈而知之耶?

然, 可盡知也. 診病若閉目不欲見人者, 脈當得肝脈, 強急而長, 而反得肺脈, 浮短而濇者, 死也.

病若開目而渴, 心下牢者, 脈當得緊實而數, 反得沉濇而微者, 死也.

病若吐血, 復衄衄血者, 脈當沉細, 而反浮大而牢者, 死也.

病若譫言妄語, 身當有熱, 脈當洪大, 而反手足厥逆, 脈沉細而微者, 死也.

病若大復而洩者, 脈當微細而濇, 反緊大而滑者, 死也.

(解釋)

經(出典이 없슴)에 이르거를 病에는 죽는 것과 治療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것, 或은 몇年 몇月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死生存亡을 切脈으로써 알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수가 있다. 病을 診脈할 때 눈을 감고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脈은 當然히 肝脈을 보이는데 強急(弦急) 하고 長한데 反對로 肺脈이 나타나서 浮短하고 濇하면 죽는다.

病이 눈을 뜨고 渴症을 느끼면서 心下가 牢(堅硬)하면 脈은 當然히 緊實하고 數해야 하는데 反對로 沉濇하고 微하면 죽는다.

病이 吐血하고 콧구멍이 막히고 코피가 나면 맥이 沉細한데 反對로 浮大하고 牢(堅硬)하면 죽는 것이다.

病이 譫語하고 妄語하면 마땅히 身熱이 있고 脈은 마땅히 洪大할 것이다.

그런데 反對로 手足이 厥逆하고 脈이 沉細하고 微한 것은 죽는 것이다.

病이 大腹에 泄瀉가 있는자는 脈이 마땅히 微細하고 濇한데 反對로 大하고 滑한 것은 죽는 것이다.

(參考)

<難經本義>에 “肝開竅於目, 閉目不欲見人, 肝病者. 肝病見於肺脈, 金克木也.”라고했다.

<難經本義>에 “陽病見陰脈, 相反也.”라고한다.

18. 十八難

十八難曰：脈有三部, 部有四經, 手有太陰. 陽明, 足有太陽. 少陰, 爲上下部, 何謂也?

然, 手太陰. 陽明金也, 足少陰. 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 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 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脈有三部九候, 各何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沉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兩以下至齊之有疾也; 下部法地, 主齊以下至足之有疾也. 審而刺之者也.

人病有沉滯久積聚, 可切脈而知之耶?

然, 診在右脇有積氣, 得肺脈結脈, 結甚則積甚, 結微則氣微.

診不得肺脈, 而右脇有積氣者何也?

然, 肺脈雖不見, 右手脈當沉伏.

其外癩疾同法耶? 將異也?

然, 結者, 脈來去時一止, 無常數, 名曰結也. 伏者, 脈行筋下也. 浮者, 脈在肉上行也. 左右表裏, 法皆如此. 假令脈結伏者, 內無積聚; 脈浮結者, 外無癩疾; 有積聚脈不結伏; 有癩疾脈不浮結. 爲脈不應病, 病不應脈, 是爲死病也.

(解釋)

脈에는 寸, 關, 尺 三部가 있고 各部에는 四經이 있는데 手太陰, 手陽明과 足太陽, 足少陰이 上下部를 이루는데 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手太陰과 陽明은 金이다.

32) 吳瑛村, 難經本義, 前掲書

足少陰과 太陽은 水이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위로 가지않는다. 그러므로 下部에 있는 것이다.

足厥陰과 少陽은 木으로써 手太陽과 少陰의 火를 生한다.

火炎은 上行하고 下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上部가 되는 것이다. 手心經은 關陰心包火와 少陽三焦火인데 足太陰脾經과 足陽明胃經의 土를 生한다. 土는 中宮을 主하므로 中部에 位置한다. 이것이 五行에 있어서 子母가 바뀌어 가면서 相生으로 기르는 것이다. 脈에는 三部九候가 있는데 各各 무엇을 主합니까? 그것은 이렇다. 三部라고 하는 것은 寸關尺을 말하고 九候하는 것은 浮中沉을 말한다. 寸인 上部는 天의 法을 따르는데 胸에서 頭에 이르는 곳의 疾病을 이곳에서 主한다. 關인 中部는 人의 法을 따르는데 胸膈아래에서 臍에 이르는 곳의 疾病을 主한다.

尺인 下部는 地의 法을 따르는데 臍아래에서 足에 이르는곳의 疾病을 主한다. 이러한 天地人의 理致를 살피서 鍼을 刺한다. 사람의 病에 滯한 것이 오래되면 積聚가 된다고 하는데 切脈으로써 알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診脈을 할 때 右脇에 積氣가 있으면 肺脈에 結脈이 있는데 結脈이 甚하면 積도 甚한 것이다. 結脈이 가벼우면 氣(積)도 가벼운 것이다.

診脈할때 肺脈에서 그런脈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右脇에 積氣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肺脈에 結脈이비록 나타나지 않지만 右手의 脈이 마땅히 沉伏하다.

外(表를 뜻함)의 痼疾(聚를 뜻)에 있어서도 같은 診脈法으로 되는가 아니면 다른가?

그것은 이렇다. 結脈은 脈이 오고 갈 때 한번씩 쉬는데 一定한 規則이 없는 것이다. 伏脈(甚히 沉한脈)은 脈이 筋의 아래를 흐르고 浮脈은 脈이 筋肉의 위를 흐른다.

左右와 表裏에 있어서도 같은 法을 따른다.

假令 脈이 結하고 伏한 것은 內에 積聚가 없는 것이며 脈이 結하고 浮하면 外로 痼疾이 없는 것이다.

積聚가 있으면서 脈이 結伏하지 않고 痼疾이 있으면서 脈이 浮結하지 않는 것은 脈이 病과 相應하지 않고 病이 脈과 相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죽는 病이다.

(參考)

<難經本義>³³⁾에 手太陰陽明은 金으로 足太陽과 足少陰의 水를 生한다. 水의 性質은 下로 가므로 下部에 있다.

足少陰과 足太陽은 水로 足厥陰과 足少陽의 木을 生하고 木은 手少陰과 手太陽의 火를 生한다. 手心은 火를 主하고 火는 上炎하므로 上部가 된다. 火는 足太陽과 足陽明의 土를 生한다. 土는 中部에 居한다. 土는 다시 金을 生한다. 이것이 五行의 子母가 서로 相生하고 기르는 이치이다.

“人有滯久積聚”에서 積이라는 것은 五十五難에 이르기를 陰氣가 쌓여서 悶친 것으로 痛證이 常處가 있는 것이다. 聚라는 것은 陽氣가 쌓여서 悶친 것으로 痛症이 常處가 없고 根本이 없다.

“診在右脇有積氣,得肺脈結”에서 右脇은 肺의 部位이다. [難經本義]에 따르면 結은 積聚의 脈인데 肺脈에서 結脈이 보이면 右脇에 積聚가 있는 것을 안다고했다.

“伏者,脈行筋下也.浮者,脈在筋上行也.左右表裏,法皆如此.”에서 浮脈은 肉의 上部와 皮,血脈의 部位를 輕浮한다.伏脈은 筋下에서 骨에 이르는 部位를 흐른다.

<難經本義>에서도 結爲積聚,伏脈行筋下主表,浮脈行肉上主表한다고 했다.

19. 十九難

十九難曰 : 經言脈有逆順, 男女有恒. 而反者, 何爲也?

然, 男子生於寅, 寅爲木, 陽也 ; 女子生於申, 申爲金, 陰也. 故男脈在關上, 女脈在關下. 是以男子尺脈恒弱, 女子尺脈恒盛, 是其常也. 反者, 男得女脈, 女得男脈也.

其爲病何如?

33) 吳埴村, 難經本義, 前掲書

然, 男得女脈爲不足, 病在內. 左得之病在左; 右得之病在右, 隨脈言之也, 女得男脈爲太過, 病在四肢, 左得之病在左, 右得之病在右. 隨脈言之, 此之謂也.

(解釋)

經에 이르기를 脈에는 逆과 順이 있어서 男女의 恒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다. 男子는 寅(木을 뜻)에서 生해서 陽이고 女子는 申(金을 뜻)에서 生해서 陰이다.

그래서 男子의 脈은 關上(寸部)에서 나타나고 女子의 脈은 關下(尺部)에서 나타난다. 이것으로써 男子의 尺脈은 언제나 弱하고 女子의 尺脈은 언제나 盛하다. 이것이 그 常脈이다.

反이라는 것은 男子가 女脈을 가지거나 女子가 男脈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病이 됩니까?

그것은 이렇다. 男子가 女脈을 얻는 것은 不足한것이므로 病이 內(軀體)에 있고 左側손에 反脈이 나타나면 몸의 왼쪽에 病이 들고 右側손에 反脈이 나타나면 몸의 오른쪽에 病이 생기는 것이다.

女子가 男脈을 가지는 것은 太過이므로 病이 四肢에 있다. 左側손에 反脈이 나타나면 病이 몸의 왼쪽에 들고 右側손에 反脈이 나타나면 病이 몸의 오른쪽에 든다.

脈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일컬음이다.

(參考)

이 難에서 말하는 經은 內經이 아니다. 內經에는 記錄이없다.

男子의 日常의인 常脈은 寸脈이 언제나 强하고 女子는 尺脈이 强하다. 男子는 寅(木)에서 生하는데 木生火의 原理로 陽性을 띠는데 그러므로 陽部인 寸脈에 男脈이 出現하고 女子는 申(金)에서 生하여 金生水의 原理로 陰性을 띠는데 陰部인 尺脈에 女脈이 나타난다.

20. 二十難

二十難曰: 經言脈有伏匿, 伏匿於何藏而言伏匿耶?

然, 謂陰陽更相乘, 更上伏也. 脈居陰部而反陽脈見者, 爲陽乘陰也. 脈雖時沉澹而短, 此謂陽中伏陰也. 脈居陽部而反陰脈見者, 爲陰乘陽也. 脈雖時浮滑而長, 此謂陰中伏陽也.

重陽者狂, 重陰者癲, 脫陽者見鬼, 脫陰者目盲.

(解釋)

經에 이르기를 脈에 伏匿脈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臟에 伏匿한 것을 伏匿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陰陽이 다시 相乘하는것과 相伏하는 것을 말한다.

脈이 陰部(尺部)에 陽脈이 反하여 나타나는 것을 陽이 陰을 乘한다고 하는데 脈에 비록 沉澹하고 短한 陰脈이 때때로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陽中에 伏陰한 것이다.

脈이 陽部(寸部)에 陰脈이 反하여 나타나는 것을 陰이 陽을 乘한다고 하는데 脈에 비록 浮滑하고 長한 陽脈이 때때로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陰中에 伏陽한 것이다.

重陽(陽이 겹치면) 狂하게 되고 重陰(陰이 겹치면) 癲하게 되는데 脫陽되면 鬼를 보게 되고 脫陰되면 目盲하게 된다.

(參考)

이 難에서 말하는 經은 內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經言脈有伏匿, 伏匿於何藏而言伏匿也?”에서 何藏은 五臟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陰部(尺部)와 陽部(寸部)를 말하는 것이다.

<難經本義>³⁴⁾에 따르면 陰部尺, 陽部寸이라고 乘은 乘車之乘이며 伏은 伏兵의 伏이다. 匿은 藏한다는 뜻이다.

21. 二十一難

二十一難曰: 經言, 人形病脈不病曰生; 脈病形不病曰死. 何謂也?

然, 人形病脈不病, 非有不病者也, 謂息數不應

34) 吳瑣村, 難經本義, 前揭書

脈數也. 此大法.

(解釋)

經에 이르기를 사람이 形에는 病이 있고 脈에 病이 없으면 사는데 脈에 病이 있고 形에 病이 없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다. 사람이 形은 病이 있으면서 脈에는 病이 없다는 것은 病이 아닌 것이 아니라 息數(呼吸의 빠르기)이 脈數(脈의 빠르기)에 相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參考)

<方盛論>에 “形氣有餘,脈氣不足者邪.脈氣有餘,形氣不足者生”라고 했으나 內經에는 그런 內容이 없다.

仲景이 말하기를 “人病脈不病,名曰內虛.以無穀氣,身雖困無苦,脈病人不病,名曰行尸.以無王氣,卒眩仆不識人,短命則邪”

22. 二十二難

二十二難曰：經言脈有是動，有所生病。一脈變爲二病者何也？

然，經言是動者，氣也；所生病者，血也。邪在氣，氣爲是動；邪在血，血爲所生病。氣主响之，血主濡之。氣留而不行者，爲氣先病也；血壅而不濡者，爲血後病也。故先爲是動，後所生也。

(解釋)

經(靈樞 經脈篇³⁵)에 이르기를 脈에는 是動과 所生이 있다고 하는데 一脈이 變하여 두 개의 病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다. 經에서 말하는 是動病은 氣病을 말하는 것이고 所生病은 血病을 말하는 것이다. 邪가 氣分에 에 있으면 氣는 是動病이 되며 邪가 血分에 있으면 血은 所生病이 되는 것이다.

氣는 响(溫暖)을 主하고 血은 濡(浸濕하고 潤한것)을 主한다.

氣가 머물러서 가지 않아서 氣가 먼저 病이

되고 그 後에 血이 막혀서 흐르지 않아서 血病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是動病이 되고 나서 後에 所生病이 된다.

(參考)

여기서 말하는 經이란 <靈樞經脈篇>이다. 經脈은 氣血의 通路인데 氣는 脈外를 循行하고 血은 脈中을 循行하는데 만일 그 脈外의 氣가 發生하는 것을 是動病이라고 한다.

脈中에 血分에 發生하는病을 所生病이라고 한다.

23. 二十三難

二十三難曰：手足三陰三陽，脈之度數，可曉以不？

然，手三陽之脈，從手至頭，長五尺，五六合三丈。手三陰之脈，從手至胸中，長三尺五寸，三六一丈八尺，五六三尺，合二丈一尺。足三陽之脈，從足至頭，長八尺，六八四丈八尺。足三陰之脈，從足至胸，長六尺五寸，六六三丈六尺，五六三尺，合三丈九尺。人兩足躡脈，從足至目，長七尺五寸，二七一丈四尺，二五一尺，合一丈五尺。督脈，任脈各長四尺五寸，二四八尺，二五一尺，合九尺。凡脈長一十六丈二尺。此所謂十二經脈長短之數也。

經脈十二，絡脈十五，何始何窮也？

然，經脈者，行血氣，通陰陽，以榮於身者也。其始從中焦，注手太陰。陽明；陽明注足陽明。太陰；少陰注手太陰。太陽；太陽注足太陽。少陰；少陰注手心主少陽；少陽注足少陽。厥陰；厥陰復還注手太陰。別絡十五，皆因其原，如環無端，轉相漑灌，朝於寸口人迎，以處百病，而決死生也。

經云：明知終始，陰陽定矣，何謂也？

然，終始者，脈之紀也。寸口人迎，陰陽之氣通於朝使，如環無端，故曰始也。終者三陰三陽之脈絕，絕則死，死各有形，故曰終也。

(解釋)

手足의 三陰과 三陽脈의 度數(距離)를 알수가 없습니까?

35)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揭書

그것은 이렇다. 手三陽의 脈은 手에서 비롯되어 頭에 이르고 길이는 五尺이므로 모두 三丈이 된다.(三陽經이 左右가 있으므로 여섯배를 하면 三陽經의 全體 길이가 나온다.)

手三陰의 脈은 手에서 비롯되어 胸中에 이른다. 한 길이는 三尺五寸이므로 모두 二丈一尺이 된다.

足三陽의 脈은 足에 비롯되어 頭에 이르는데 한 길이가 八尺이므로 모두 四丈八尺이다.

足三陰의 脈은 足에서 비롯되어 胸에 이르는데 길이는 六尺五寸이므로 모두 三丈九尺이 된다.

사람의 兩足 踴脈은 足에서 비롯되어 目에 이른다. 길이는 七尺五寸이므로 陰陽踴脈 모두 一丈五尺이 된다.

督脈과 任脈의 길이가 각 四尺五寸으로 모두 九尺이 된다.

무릇 脈의 길이는 一十六丈 二尺인데 이것이 十二經脈의 길고 짧음의 數이다.

經脈 열두개와 絡脈 열다섯개는 어디서 始作 어디서 끝이 남니까? 그것은 이렇다. 經脈은 血氣를 行하고 陰陽을 通하므로써 몸에 榮養을 주는 것이다. 中焦에서 始作되어 手太陰肺-手陽明大腸-足陽明胃-足太陰脾-手少陰心-手太陽小腸-足太陽膀胱-足少陰腎-手厥陰心包-手少陽三焦-足少陽膽-足厥陰肝으로 흐른다.

別絡 十五는 모두 그 原에서 비롯되어서 고리처럼 끝나지 않는다. 서로 바뀌면서 흘러서 寸口와 人迎脈에서 만남으로써 百病의 死生을 決定한다.

經(靈樞 終始篇)³⁶⁾에 이르기를 終始를 밝게 알면 陰陽을 바르게 알수있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다. 終始라는 것은 脈의 紀(大綱)이다.

寸口와 人迎脈은 陰陽의 氣가 모이는 곳으로 고리와 같이 끊임없이 돌아가므로 始라고 할 수 있다.

終이라는 것은 三陰三陽의 脈이 끊어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에는 各 形態가 있어서 그러므로 終이라고한다.

(參考)

“人兩足踴脈,從足至目...”에서 사람의 奇經八脈에는 陰踴,陽踴 二脈이 있는데 跟骨의 內側이나 外側에서 始作하여 上行하여 目에 이른다. 脈의 長度는 七尺五寸이며 男子는 陽踴脈이 빠르고 女子는 陰踴脈이 빠르다. 左右를 合해서 一丈五尺이 된다. “朝於寸口人迎,以處百病,而決死生也.”에서 寸口脈은 各經脈이 朝會하는 곳으로 百病을 이곳에서 決斷한다. 이곳을 診斷하므로써 虛實死生吉凶을 判斷한다.

“寸口,人迎,陰陽之氣通於朝使,如環無斷,故曰始也”에서 寸口之脈은 十二經의 氣가 모이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돌아가서 正常的 循環狀態를 維持하므로 이를 始라고 한다.

“終者,三陰三陽之脈絕,絕則死,死各有形,故曰終也.”에서 終이라는 것은 三陰三陽의 脈氣斷絶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經脈의 機能이 停止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如環無斷의 循環機能과 百脈의 朝會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終이라 하며 이는 곧 죽음이다.

IV. 結 論

八十一難經 中에서 二十三難까지 脈學에 關한 條를 解釋했는데 百脈이 朝會하고 그 始作과 끝이 되는 寸口를 中心概念으로 하고 正常的인 生理的 脈과 病的인 脈이 對比되면서 提示되었다. 대체로 <內經>의 理論과 같은 脈絡이지만 <難經>에만 있는 獨特한 理論들이 나타나는데 十難, 十三難, 十四難, 十五難 등이 그러한 條이다.

1. 十難에서 五邪와 剛柔의 理論과 各 臟腑의 固有한 脈狀이 登場하고 있다.
2. 十三難에서는 色과 脈, 形肉의 세가지 要素가 相應또는 相勝하는가에 따라서 病的 難, 易治를 決定한다고 하였다.
3. 十四難에서는 脈을 損(遲脈)과 至(數脈)으로 구분하는데, 脈의 損에 따른 離經, 奪精, 死, 絕命의 區分과, 脈의 至에 따른 離經, 奪精, 死, 絕命을 區分을 說明하였다.

36)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前掲書

4. 十五難에서는 弦、鉤、毛、石脈으로 四時에 따라서 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같이 難經에서는 “獨取寸口”의 脈法을 明確하게 確立하였으며, <內經>의 理論을 더욱 다져서 進一步시키면서도 <內經>과는 다른 獨創的 理論을 提示한 것이 <難經>의 價値를 더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심도있는 研究로써 <難經>이 指向하는 核心 思想을 現代的 韓醫學에 더욱 效率的으로 適用시키는 努力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尹暢烈·金善鎬, (黃帝八十一 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診斷學會誌, 1997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員, 1987, p. 95
3.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技, 1989
4. 葉霖, 難經正義, 北京; 人民衛生, 1990
5. 吳垣村, 難經本義, 台南; 莊家出版社, 中華民國73年
6. 王九思外,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4年
7. 王琦外 3人,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 1981
8. 秦越人,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 1982
9. 本間祥白(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86

=Abstract=

A study on The Pulse taking diagnostics of Nan Jing 1-23 Nan

Bup-Jin Kim · Won-Hwan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Nan Jing(Difficult Classic), as a catechism, describes in detail and deeply the ideas in Nei Jing(Huangdi's Internal Classic). The description of Nan Jing is focused on basic theories including theories about some disease and is excellent in identification and analysis. The contents of Nan Jing are as follows: 1~23 Nan-pulse and pulse condition, 24~29 Nan-channels and collaterals, 30~47 Nan-viscero and bowels(Zang Fu organs), 48~61 Nan-disease, 62~68 Nan-acupuncture points, 69~91 Nan-acupuncture. Especially, diagnosis techniques in Nan Jing make 'Only method of cunkou pulse taking' that is a technique for feeling the pulse widely applied in these days in Oriental medicine clear.

Thus, this book adjusts the theory of pulse and pulse condition given in 1~23 Nan of 'The Study of Nan Jing' in order to enhance an understanding about the theory of pulse and pulse condition. The text of 1~23 Nan about pulse lore centers on all pulse of human body interconnected each other and cunkou, both ends of the pulse, and contrasts regular pulse with irregular pulse.

1. 10 Nan describes the theory about five kinds of evils and hardness and softness, and unique pulse condition of each bowels.
2. 13 Nan explains that the relative difficulty of medical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balance or unbalance among three factors-colors, pulse and pulse condition, flesh shape.
3. 14 Nan divides pulse and pulse condition into slow pulse and rapid pulse, and explains separately abnormality, great loss of semen, death caused by slow pulse, and abnormality, great loss of semen, death caused by rapid pulse.
4. 15 Nan about taut pulse(弦), full pulse(鉤), floating pulse(毛), deep pulse(石脈) describes that pulse and pulse condition differs according to four seasons.

Therefore, Nan Jing establishes clearly techniques of feeling the pulse in 'Only method of cunkou pulse taking(獨取寸口)' and advances the theory of Nei Jing. Futhermore, Nan Jing is more valuable in that it suggests unique theory different with Nei Jing.

KeyWord : Nan Jing, channels, diagnosis, cunkou pulse taking, The Study of Nan Jing